

## 12지 이야기(8) 양 - 평화의 상징



이 정 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수필가  
cgl8509@comcast.net

양은 순하고 어질고 착하고 참을성 많은 동물이다. 욕심이 없어 여러 마리를 한 우리에 넣어 길러도 서로 다투는 일이 없다. 무릎을 꿇고 어미의 젖을 빠는 효성스러운 동물이며, 평화로운 동물이어서 싸움을 모른다. 그러나 한 번 화가 나면 참지 못하며, 갔던 길로 반드시 되돌아오는 고지식한 면도 있다. 상형문자 양羊은 아름다움 [美], 상서로움 [祥], 착함 [善] 등의 좋은 뜻을 가진 한자들에서 생겨났다고 한다. 큰 양, 즉 대양大羊이 美가 되었으며, 내 [我] 가 갖추어야 할 미덕 [羊] 이 곧 의로움 [義]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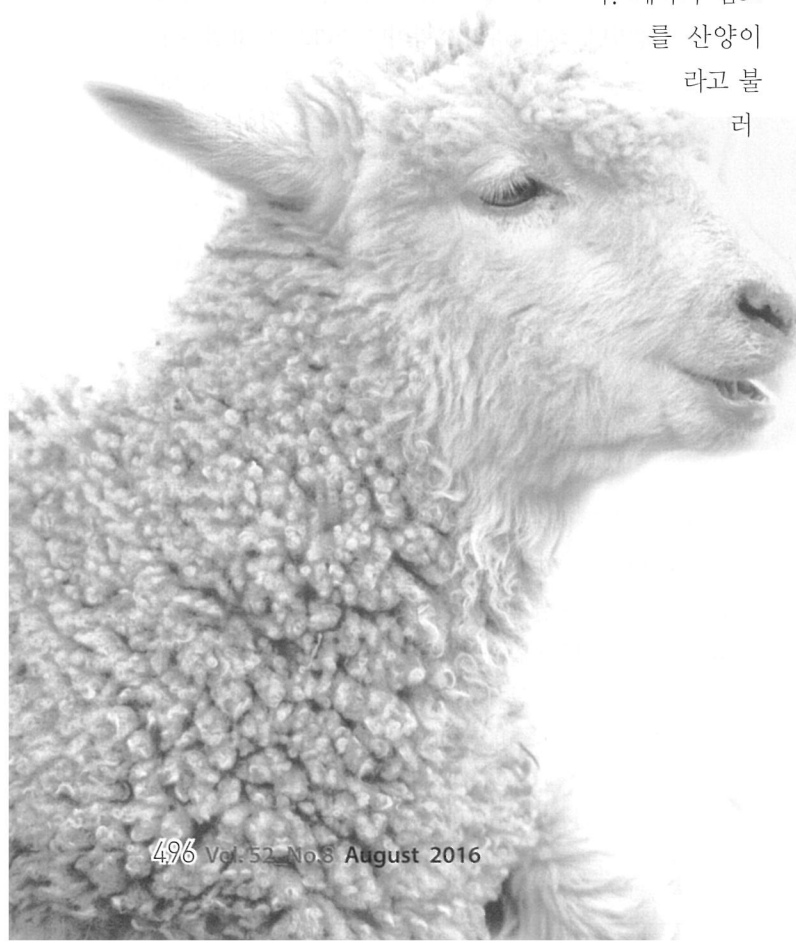
우리가 사용하는 '양' 이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동물이 포함되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양과 염소는 비슷한 데가 있다. 게다가 염소를 산양이라고 불러

온 탓에 옛 문헌의 내용에 불분명한 곳도 많고 읽으면서 헛갈릴 때도 많다. 앞으로는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양은 면양을 말한다. 한자대전에서 '羊' 자를 찾아보면 sheep이라고 부연 설명되어 있다. 몸 전체가 회백색 곱슬털로 싸여있어, 주로 섬유로 쓰는 양모를 생산하려고 세계 각지의 넓은 목장에서 사육하는 동물을 가리킨다. 섬유의 생산에 쓰던 털로 붓을 만들기도 했고, 주로 구두를 만드는 데 쓰던 가죽으로 양피지를 만들어 썼으며, 고기는 주식 중의 하나였다. 양은 풀의 밑동까지 뜯어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계절의 이행에 따라 윤환방목을 시키는 목장에서는 사료를 절약할 목적으로, 소가 풀의 윗동을 뜯어 먹고 지나간 초지에 면양을 몰아 넣는다. 넓은 초지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양의 수는 아주 적다.

염소는 모양부터가 면양과 다르다. 갈색, 백색, 흑색 등의 곧은 털을 가지고 있다. 아주 험한 산악지대에도 잘 적응하며, 먹이도 솔잎이나 덩쿨져 올라간 칩 등, 위에 달린 것들을 따 먹는다. 그래서 건초도 매달아 주어야 빼 먹는다. 우리나라에 젓소가 들어오기 전에는 젓염소를 많이 길러 젓을 생산했다. 지금은 주로 고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한다. 고기는 보양식으로 먹기도 하고, 한방에서 원기가 부족한 사람의 약으로도 많이 쓰인다.

산양은 염소와도 양과도 다른 야생동물이지만, 양보다 염소에 더 가깝다. 천연기념물 제217호이며 회갈색 털에 뾰족한 뿔을 가지고 있다. 깊은 산 속 높고 험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좀처럼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다. 풀, 나뭇잎, 각종 열매, 식물의 줄기 등을 먹고 산다. 시베리아와 만주에서도 서식하는 산양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설악산에서 살며 멸종 위기에 놓여있어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동물이다. 미국에도 이



와 비슷한 온몸이 희고 긴 털로 뒤덮인 로키 산맥 산양이 야생하고 있다.

삼한시대에 양을 식용했다는 기록과 함께 낙랑출토포에서 양 장식이 보이기도 하지만, 십이지의 다른 동물에 비하여 양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인연이 적은 동물이다. 명복을 비는 의미로 무덤 옆에 돌로 새긴 양 [石羊] 을 세우기도 했다. 해안 지역에서는 새해 첫 양날인 상미일(上未日)에 출항을 삼가기도 했는데, 그것은 염소가 경솔해서 그날 출항하면 해난을 당한다는 생각에서 유래된 풍습이다. 상미일에는 또 약을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믿음에 약도 먹지 않았다. 대신 이날에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해가 없을 것으로 치부했다. 양이 온순한 동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꿈에 나타나는 양은 착한 사람이나 진리 또는 재물을 상징했다.

양띠의 사람은 온순하며 침착하고 욕심이 없다. 자존심이 강하고, 남에게 피해 주기를 싫어하며, 묵묵히 자기 일만 한다. 교사, 언론인, 예술인 등의 직종에 알맞다. 반면 결정을 내리기보다 남의 의견에 따라가는 성향을 나타내며, 쉽게 감상에 빠지고, 가까운 사람과 곤잘 담을 쌓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순한 이미지가 강하며, 인정이 많아 평화주의자가 된다. 친절함 마음씨 때문에 흔히 행운도 따른다. 우리는 양띠를 염소띠라고도 한다.

인간은 약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기독교 신자를 '길 잃은 양' 이라고도 부른다.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판다는 뜻의 양두구육(羊頭狗肉)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내세우지만 속은 변변하지 않다는 뜻으로 쓰인다. 마치 양의 창자처럼 꼬불꼬불하고 험한 산길을 구절양장(九折羊腸)이라고 부른다.

태아를 보호하다가 출산 때는 홀리나와 분만을 쉽게 해주는 물은 양수(羊水)다. 그리고 고사리는, 전 세계에 1만 종 이상이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250종 이상이나 존재하는 양치식물(羊齒植物)의 한 종이다.

양은 약하고 순하며 선한 존재로 대접 받았다. 반면 염소는 남의 죄나 뒤집어쓰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나 악인의 대명사였다. 우리는 염소의 턱에 난 수염, 머리에 솟은 뿔이 학자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보았지만, 서양문화에서는 선인과 악인을 구별한다는 뜻으로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고 표현했다. 속죄의 날에 제사장이 사람들의 죄를 상징적으로 머리에 짊어지워 아자겔에게 바친 scapegoat는 '속죄의 염소' 라야 맞는 표현 아닐까.

뉴질랜드는 인구보다 양의 수가 훨씬 많은 나라다. 비행기에서 넓은 초원을 내려다보면 파란 풀밭의 하얀 양들이 마치 벌레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양들을 '목초지의 구더기' 라 부르기도 한다.

다른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평화로운 모습.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장 평화로운 모습은 구약성서 이사야 65:25에 나오는 평화로운 새 세상이다. ♡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고 살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나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이 없으리라.

